

『醫學入門』의 인용서적으로 살펴본腰痛의 분류와 기준

¹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¹ *

The Classification and Criterion for Low Back Pain Examined from Reference Books of *Yi Xue Ru Men* *Men*(醫學入門)

Jo Hak-jin¹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In order to find how reference books of *Yi Xue Ru Men* reflect the classification and criterion for low back pain(LBP).

Methods : From reference books of *Yi Xue Ru Men*, select the texts on classification and criterion for LBP.

Results : According to the causes of LBP, Chao Yuan Fang(巢元方) in Sui Dynasty assorted to 5 types of LBP at the very first. Chen Wu Ze(陳無擇) in Song Dynasty made 7 divisions by external, internal, and non-external, non-internal causes. According to the pulse of LBP, Yan Yong He(嚴用和) first categorized 4 groups, Zhu Zhen Heng(朱震亨) added another 4 groups. Aside from this standard, Zhu(朱震亨) adopted the cause standard. Depending on Yunqi(運氣), Lou Ying(樓英) classified 5 types. But his classification had been not adopted by any TCM books. According to symptom of 6 varieties(六變), Zhang Jie Bin(張介賓) assorted external(表), internal(裏), deficiency(虛), sufficiency(實), cold(寒) and heat(熱), add 2 groups besides them. But his categorization did not reflect *Yi Xue Ru Men*. Li Chan(李梴), the author of this book chose causes and pulse classification standards that Zhu Zhen Heng had adopt.

Conclusions : In the side of classification and criterion for LBP, Li Chan first divided 2 group, external and internal injury. After it he subdivided both groups to 10 subgroup. His classification is similar to Chen(陳無擇)'s, but actually followed the classification for external and internal injury that was invented by Li Dong Yuan(李東垣).

Key Words : Low Back Pain, Classification, Criterion, *Yi Xue Ru Men*(醫學入門).

I. 序 論

질병에 대한 分類는 해당 질병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을 診斷, 治療하는 데에 중요한 뿐만 아니라 豫後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韓醫界는 腰痛의 症狀, 病因, 病機, 診斷, 治療 측면에서 꾸준한 연구를 거듭하였으며, 그 결과 『東醫寶鑑』에서는 10종 腰痛으로 分類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저자는 앞서 『醫學入門』에서 腰痛을 10가지로 分類한 내용이 『東醫寶鑑 腰痛門』에 매우 큰 영향을 주어 10종 腰痛 分類에 대부분 반영되었음을¹⁾ 밝힌 바가 있다.

현재까지 腰痛의 分類에 대한 연구로 광 등²⁾은 腰痛의 分類를, 김 등³⁾은 내과적 腰痛의 臨床 통계를 다룬 적이 있다. 또한 김 등⁴⁾은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腰痛의 辨證 이용 빈도를 비교하였다.

한편 中醫學에서는 腰痛을 內科 관점으로 分類하고 있으며⁵⁾, 간혹 치료 측면에서 외과영역으로 다루고 있고⁷⁾, 북한의 경우도 중국과 비슷하다⁸⁾.

그러나 『醫學入門』에서 제시한 10가지 腰痛 分類가 어느 서적에서 기인하였는지, 또는 어떤 서적의 기준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醫學入門 腰痛』에서 인용한 서적을 중심으로 李梴이 腰痛을 분류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했는지, 또한 『醫學入門』의 腰痛 分類가 어떤 서적으로부터 기인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醫學入門 腰痛』에서 인용한 서적은 『世醫得效方』, 『丹溪心法附餘』, 『醫方捷徑』, 『醫學權輿』, 『玉機微義』, 『袖珍方』, 『仁齋直指』를 비롯하여, 『傷寒論』, 『金匱要略』, 『三因極一病證方論』, 『諸病源候論』, 『濟生方』, 『東垣試效方』, 『脈因證治』, 『普濟方』, 『醫學正傳』, 『證治要訣』, 『醫學綱目』, 『萬病回春』, 『古今醫鑑』, 『壽世保元』 등이다⁹⁾. 그 중 腰痛 分類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서적을 선택하여 시대 순서로 배열하여 『醫學入門』의 腰痛 分類와 비교하였다.

III. 本 論

1. 『內經』의 分類

‘腰痛’이라는 名稱은 『內經』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¹⁰⁾, 이미 腰痛에 대해 전문적이고 자세히 논하였다.

『素問 刺腰痛論』에서 足三陰三陽(足太陰 제외)¹¹⁾과 奇經八脈(任脈, 督脈, 衝脈 제외)과 別絡(解脈, 同陰, 衡絡, 會陰, 飛陽, 昌陽, 散脈, 肉里 등)의 각종 腰痛의 症狀를 기술하고 또한 鍼刺治療와 取穴을 제시하였다¹²⁾. 또한 腎虛¹³⁾, 外邪¹⁴⁾¹⁵⁾, 濕邪¹⁶⁾, 寒

9) 조학준. 『醫學入門 腰痛』의 문헌 근거. 대한한의학회지. 2014. 27(2). p.134.

10) 臨床中醫內科學 編委會. 臨床中醫內科學(下).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1131.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53.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53-154.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7. “腰者腎之府, 轉搖不能, 腎將備矣..”

* Corresponding Author : Jo Hak-jun, 202,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 82-43-649-1347. E-mail : jpalm01@hanmail.net. Received(29 December 2014), Revised(12 February 2015), Accepted(13 February 2015).

1) 조학준. 『醫學入門 腰痛』의 문헌 근거. 대한한의학회지. 2014. 27(2).

2) 광현영, 남동우, 강중원, 김은정, 김갑성, 최도영, 이재동. 고전에 나타난 腰痛 및 관련 진신 증상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9. 26(6).

3) 김인상, 최현, 문석재, 박호식. 脾系內科 領域에서 본 腰痛의 臨床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88. 9(1).

4) 김민우, 고연석, 이정환, 정원식, 신병철, 차운엽, 고호연, 신승호, 전찬용, 장보형, 송윤경, 고성규. 한국과 중국 논문에서 사용된 요통 변증에 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2013. 23(2).

5) 臨床中醫內科學 編委會. 臨床中醫內科學(上).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1131.

6) 楊思樹, 張樹生, 傅景華 主編. 안세영 譯. 東醫臨床內科學(II). 서울. 법인문화사. 1999.

7) 王守東, 劉柏齡 主編. 中醫骨傷科 臨床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8) 東醫學研究所 편저. 東醫外科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濕¹⁷⁾, 天時¹⁸⁾, 內傷¹⁹⁾²⁰⁾, 瘀血²¹⁾ 등의 病因病機를 거론하였다.

이외에 運氣篇, 經脈篇 등에 腰痛에 관한 서술이 적지 않으나 六經 分類와 奇經 分類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分類라고 보기 어렵다.

2. 『傷寒論』에서 언급한 腰痛

張仲景은 『傷寒論辨太陽病證并治法第六』에서 太陽病에 腰痛의 症狀이 나타남을 언급하였다²²⁾.

한편 李梴은 『醫學入門傷寒』에서 『傷寒論』에서 언급한 太陽病 腰痛 외에 陽明, 少陽, 少陰, 太陰, 厥陰病의 腰痛 症狀과 處方을 보충하였다²³⁾.

3. 『金匱要略』에서 언급한 腰痛

張仲景은 『金匱要略』에서 虛勞, 水氣, 伏飲, 五臟風寒積聚의 여러 질병에서 虛勞腰痛²⁴⁾, 腎著腰痛²⁵⁾,

-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86. “虛邪之中人也, …… 傳舍於輸, …… 則肢節痛, 腰脊乃強.”
-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6.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腰脊強.”
-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5. “太陰司天, 濕氣下臨, 腎氣上從, …… 當其時, 反腰腫痛, 動搖不便也.”
-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266-267. “凡此太陰司天之政, 氣化運行後天 …… 終之氣, 寒大舉, 濕大化 …… 腰腫痛, 寒濕推於氣交而爲疾也.”
-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85. “少陰所謂腰痛者, 少陰者, 腎也, 十月萬物陽氣皆傷, 故腰痛也.”
-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9. “心病者, …… 虛則胸腹大, 脇下與腰相引而痛.”
-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8. “腎盛怒而不止, 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俯仰屈伸.”
-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53. “衡絡之脈, 令人腰痛, 不可以俯仰, 仰則恐仆, 得之舉重傷腰, 衡絡絕, 惡血歸之, 刺之在郄陽筋之間, 上數寸, 衡居爲二疝出血.”
- 22) 張仲景 著. 成無己 註.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71. “太陽病,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疼痛, 惡風, 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
- 2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514-1516.
- 24) 張仲景 著.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71. “虛勞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者, 八味

痰腰痛²⁶⁾을 언급하였으나 腰痛에 대한 기술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체계적인 分類를 사용하지 않았다.

『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에서 말한 腎著腰痛은 寒濕腰痛에 해당하는데, 처음으로 그 病因, 症狀, 水病과의 鑑別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張仲景이 만든 甘薑苓朮湯(腎著腰痛에 사용)과 八味腎氣丸(虛勞腰痛에 사용)은 일찍이 역대에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 多用되고 있다.

『金匱要略』의 虛勞腰痛, 腎著腰痛, 痰腰痛은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각각 勞傷腰痛, 寒(濕)腰痛, 痰腰痛과 유사하다.

4. 『華佗中藏經』에서 언급한 腰痛

東漢代 『華佗中藏經心藏虛實寒熱生死逆順脈證之法第二十四』에서 “(心이) 虛하면 가슴이 흔히 두근거리고, 걱정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과 배와 허리와 등이 당기면서 아프고, 슬피하기를 잘하고 때때로 어지러워 쓰러진다.”²⁷⁾라고 하였다.

또한 『華佗中藏經察聲色形證決死法第四十九』에서 “뼈의 기운이 끊어지고 허리와 등뼈가 아프고 腎이 속에서 무겁게 느껴져서 뒤척이지 못하고 발과 무릎 뒤쪽이 부어서 평평해진 경우는 5일 만에 죽는다.”²⁸⁾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華佗中藏經』은 心虛腰痛, 骨絕腰痛의 症狀를 언급하였으나 아직 체계적인 分類를 사용하지 않았다.

『華佗中藏經』의 心虛腰痛, 骨絕腰痛은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서로 비슷한 내용이 없다. 따

腎氣丸, 主之.”

- 25) 張仲景 著.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0. “腎著之病, 其人身體重, 腰中冷, 如坐水中, 形如水狀, 反不渴, 小便自利, 飲食如故, 病屬下焦. 身勞汗出, 衣裏冷濕, 久久得之. 腰以下冷痛, 腰重如帶五千錢, 甘薑苓朮湯主之.”
- 26) 張仲景 著.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2. “膈上痰癆, 滿喘咳吐, 發則寒熱, 背痛, 腰疼, 目泣自出, 其人振振身劇, 必有伏飲.”
- 27) 著者 未詳. 華佗中藏經. 타이완. 자유출판사. 1978. p.17. “(心)虛則多悸, 惕然無眠, 胸腹及腰背引痛, 喜悲時眩仆.”
- 28) 著者 未詳. 華佗中藏經. 타이완. 자유출판사. 1978. p.17. “骨絕, 腰脊痛, 腎中重, 不可反側, 足膝後平者, 五日死.”

라서 『華佗中藏經』은 『醫學入門』의腰痛分類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諸病源候論』의 分類

隋代 巢元方は 『諸病源候論·腰痛候』에서 “무릇腰痛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少陰’이니 少陰은 腎을 뜻한다. 음력 十月에 萬物이 陽氣가 상하므로腰痛이 생긴다. 둘째는 ‘風痺’이니 風寒이 허리에 달라붙으므로腰痛이 생긴다. 셋째는 ‘腎虛’이니 勞役으로 腎을 상하므로腰痛이 생긴다. 넷째는 ‘개요(腎腰)’이니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므로腰痛이 생긴다. 다섯째는 ‘濕地에서 자거나 누워 자기 때문에’腰痛이 생긴다.”²⁹⁾라고 하였다. 첫째의 ‘少陰’은 腎虛腰痛에 해당하고, 둘째의 ‘風痺’는 腎著腰痛에 해당하고, 셋째의 ‘腎虛’는 勞役腰痛에 해당하고, 넷째의 ‘腎腰’는 閃挫腰痛에 해당하고, 다섯째의 寢臥濕地는 濕腰痛에 해당한다.

이처럼 巢元方은腰痛에 대해 ‘原因’에 따라 腎虛腰痛, 腎著腰痛, 勞役腰痛, 閃挫腰痛, 濕腰痛의 5가지로 비로소 나누었다. 이를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각각 房勞腰痛, 寒(濕)腰痛,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 勞傷腰痛, 濕腰痛과 유사하다.

또한 『諸病源候論·腰背痛諸候』에서 “무릇 과로한 사람은 腎氣가 虛損된다. 腎은 腰脚을 주관하고 그 經脈이 腎을 관통하고 등뼈에 이어진다. 風邪가 虛한 틈을 타서 갑작스럽게 腎經으로 들어가므로 갑자기 腰痛을 앓는다.”³⁰⁾고 하여腰痛이 갑자기 생기는 것을 ‘卒腰痛’이라고 하고, “무릇腰痛은 모두 腎氣를 상해서 생긴다. 腎虛에 風邪를 받으면 風邪가 腎

經에 머무르고 쌓이고 血氣와 함께 부딪쳐서 오래도록 흠어지지 않으므로 오래도록腰痛이 생긴다.”³¹⁾라고 하여 반복하여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을 ‘久腰痛’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6. 『備急千金要方』의 分類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腰痛第七』에서 『諸病源候論』의 요통의 5가지 分類를 인용하고 처방 18개, 鍼灸導引 8개를 제시하였다³²⁾. 이를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諸病源候論』에서 분석한 것과 같다.

7. 『外臺秘要』의 分類

唐代 王燾는 『外臺秘要』에서 『諸病源候論』에 따라 5가지 요통 중에서 ‘少陰’과 ‘腎虛’를 합하여 風濕腰痛, 腎著腰痛, 腎虛腰痛, 腎腰痛의 4가지로 삼고, 다시 卒腰痛, 久腰痛의 2가지를 추가하여 6가지로 분류하였다³³⁾. 이를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각각 風腰痛(風熱, 風虛, 風寒濕), 寒(濕)腰痛, 房勞腰痛,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과 유사하다.

8. 『仁齋直指』의 分類

宋代 楊士瀛은 『仁齋直指·腰痛』에서 原因에 따라 風, 濕, 冷, 熱, 血, 氣, 水, 瘀血, 失志, 勞力 등 10가지로 分類하였다³⁴⁾.

29)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89. “凡腰痛有五. 一曰少陰, 少陰申也, 七月萬物陽氣傷, 是以腰痛. 二曰風痺, 風寒著腰, 是以痛. 三曰腎虛, 役用傷腎, 是以痛. 四曰腎腰, 墜墮傷腰, 是以痛. 五曰寢臥濕地, 是以痛.”

30)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90. “腎主腰脚, 而三陰三陽, 十二經, 八脈, 有貫腎絡於腰脊者. 勞損於腎, 動傷經絡. 又爲風冷所侵, 血氣擊搏, 故腰痛也. 陽病者, 不能俯. 陰病者, 不能仰. 陰陽俱受邪氣者, 故令腰痛而不能俯仰. 『養生方·導引法』云, 伸兩脚, 兩手指著足五指上. 愈腰折不能低者, 唾血, 久痊愈. 又云, 長伸兩脚, 以兩手捉足五指七通. 愈折腰不能低仰也.”

31)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90. “腎主腰脚, 而三陰三陽, 十二經, 八脈, 有貫腎絡於腰脊者. 勞損於腎, 動傷經絡. 又爲風冷所侵, 血氣擊搏, 故腰痛也. 陽病者, 不能俯. 陰病者, 不能仰. 陰陽俱受邪氣者, 故令腰痛而不能俯仰. 『養生方·導引法』云, 伸兩脚, 兩手指著足五指上. 愈腰折不能低者, 唾血, 久痊愈. 又云, 長伸兩脚, 以兩手捉足五指七通. 愈折腰不能低仰也.”

3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605-608.

33)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430-434.

34)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3-356. “腰者, 腎之外候. 一身所恃, 以轉移闔關者也. 蓋諸經皆貫於腎而絡於腰脊. 腎氣一虛, 凡衝風, 受濕, 傷冷, 蓄熱, 血滯, 氣滯, 水積, 墮傷, 與夫失志, 作勞, 種種腰痛, 疊見而層出矣. 衝風者, 汗出乘風, 風邪風毒之胚胎也. 受濕者, 踐雨臥濕, 重著滯滯之萌蘖也. 腰間如水爲傷冷. 發渴便閉爲蓄熱. 血滯, 則轉側如錐之

이를 『醫學入門』의 10가지와 비교하면 風, 濕, 冷, 熱, 瘀血, 失志, 勞力의 7가지가 일치하지만, 氣, 水, 血의 分類는 『醫學入門』에 반영되지 않았다.

楊士瀛은 또한 “肝은 宗筋을 主하여 腎과 同系가 되고 脾는 五臟에 힘입으니 腎의 倉廩이다. 鬱怒로 傷肝하면 諸筋이 縱弛하고 憂思가 傷脾하면 胃氣가 不行하니 이 두 가지가 또한 능히 腰痛의 原因이 된다.”³⁵⁾고 하여, 腎虛 외에 肝, 脾도 腰痛의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9. 『濟生方』의 分類

嚴用和는 『濟生方腰痛門』에서 緊, 浮, 細, 實의 ‘脈象’에 따라 寒腰痛, 風腰痛, 濕腰痛, 挫閃腰痛으로 分類하고³⁶⁾, 腎虛가 이러한 原因에 先行하므로 腰痛의 근본적인 原因이 된다고 지적하였고³⁷⁾, 寒腰痛의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³⁸⁾.

『濟生方腰痛門』에서 사용된 寒腰痛, 風腰痛, 濕腰痛, 挫閃腰痛, 腎虛腰痛의 分類를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각각 寒腰痛(六經腰痛 포함), 風腰痛(風熱, 風虛, 風寒濕), 濕腰痛,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 房勞腰痛과 유사하다.

10. 『三因極一病方證論』의 分類

南宋代 陳無擇은 『三因極一病方證論腰痛』에서 巢元方이 제시한 腰痛의 5가지 分類를 따르지 않고

所刺。氣滯，則鬱鬱悶悶而不伸。積水沈重，則小腸不得宣通。墜墮損傷，則瘀血爲之凝結沮洳。失志者，腎之蠹。疲精勞力者，腎之賊。”

35)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54. “宗筋聚於陰器，肝者，腎之同系也。五臟皆取氣於穀，脾者，腎之倉廩也。鬱怒傷肝則諸筋縱弛，憂思傷脾則胃氣不行，二者又能爲腰痛之寇，故併及之。”

36)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3. “大抵腰痛之脈，脈皆沈弦，沈弦而緊者爲寒腰痛，沈弦而浮者爲風腰痛，沈弦而濡細者爲濕腰痛，墜墜閃肭，以致氣凝血滯而痛者，脈多沈弦而實也..”

37)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3. “夫腰痛者，屬乎腎也。多因勞役傷腎，腎臟氣虛，風寒冷濕得以襲之，志鬱憂思得以傷之，皆致腰痛。”

38) 조학준. 『醫學入門腰痛』의 문헌 근거. 대한한의학회지. 2014. 27(2). p.122.

三因으로 논하였다.

陳無擇은 外因의 腰痛에 대해 “太陽腰痛은 뒷목과 등뼈와 꿈무늬가 당기고 등이 무거운 듯하다. 陽明腰痛은 돌아보지 못하고, 돌아보면 본 것이 있는 듯하고 슬퍼하기를 잘 한다. 少陽腰痛은 그 피부를 찌르는 듯하고 뻣뻣하여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다. 太陰腰痛은 煩熱하고 허리 아래가 마치 가로지른 나무가 그 속에 있는 것 같고, 심하면 遺尿가 생긴다. 少陰腰痛은 등뼈 속이 당긴다. 厥陰腰痛은 허리 속이 뻣뻣하여 활시위를 당기는 듯하다. 이는 六經을 예로 들어 外因에 대한 치료이다.”³⁹⁾라고 하였다. 이로써 『素問·刺腰痛論』에서 빠진 太陰腰痛을 보충하여 六經腰痛을 점차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陳無擇은 “대체로 太陽과 少陰은 寒邪에 적합한 경우가 많고, 少陽과 厥陰은 風熱이 많고, 陽明과 太陰은 燥濕이 많다.”⁴⁰⁾고 하여 六經腰痛과 六氣의 상관성을 논하였다.

陳無擇은 內因의 腰痛에 대해 “失志傷腎과 鬱怒傷肝과 憂思傷脾가 모두 腰痛을 일으키는 것은 肝腎이 함께 매어있고, 脾胃가 表裏가 되어 脾가 滯하면 胃가 막히기 때문에 腰痛을 가장 잘 일으킨다.”⁴¹⁾고 하였다. 이로써 內因의 腰痛에 대해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의 腎·肝·脾의 三臟으로 分類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不內外因의 腰痛에 대해 腎著腰痛, 腎腰痛, 房勞疲勞腰痛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⁴²⁾.

39)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56-157. “太陽腰痛，引項脊尻，背如重狀。陽明腰痛，不可以顧，顧則如有所見，善悲。少陽腰痛，如針刺其皮，循循然，不可俯仰，不可以顧。太陰腰痛，煩熱，腰下如有橫木居其中，甚則遺洩。少陰腰痛，痛引脊內。厥陰腰痛，腰中強急，如張弩弦狀。此舉六經以爲外因治備。”

40)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大抵太陽少陰多中寒，少陽厥陰多中風，太陰陽明多中燥濕”

41)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56-157. “失志傷腎，鬱怒傷肝，憂思傷脾，皆致腰痛者，以肝腎同系，脾胃表裏，脾滯胃閉，最致腰痛。”

42)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56-157. “腎著腰痛，腰冷如冰，身重不渴，小便自利，食飲如故，腰以下冷重如帶五千錢，因作

이와 같이 陳無擇은 腰痛에 대해 外因, 內因, 不內外因의 病因을 기준으로 크게 分類하고, 다시 外因은 ‘六經’을 기준으로, 內因은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의 五臟을 기준으로, 不內外因은 腎著腰痛, 腎腰痛, 房勞疲勞腰痛의 기타 기준으로 細分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三因極一病方證論』의 六經腰痛,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 腎著腰痛, 腎腰痛, 房勞疲勞腰痛을 『醫學入門』의 分類⁴³⁾와 비교하면 각각 寒腰痛(六經腰痛 포함), 失志腰痛(鬱怒傷肝, 憂思傷脾), 濕腰痛,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 房勞腰痛, 勞傷腰痛과 유사하다.

11. 『東垣試效方』의 分類

金代 李東垣은 『東垣試效方』에서 『素問六元正紀大論』의 太陽腰痛의 症狀을 인용하면서 太陽腰痛은 寒濕이 많고 風熱이 적다고 논하였다⁴⁴⁾.

陳無擇은 六經腰痛의 頻도와 六氣 각각의 상관성을 밝힌 데 반해⁴⁵⁾, 李東垣은 太陽腰痛의 원인이 주로 寒濕임을 밝히었다.

또한 李東垣은 腎虛腰痛이 膏粱珍味를 즐기는 사람이 오래도록 陽藥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入房하여 생긴다는⁴⁶⁾ 病理機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東垣試效方』에서 사용된 太陽腰痛, 房勞腰痛, 勞傷腰痛은 『醫學入門』의 分類과 비교하면 각각 寒腰痛(六經腰痛 포함), 房勞腰痛, 勞傷腰痛과 유사하나, 체계적인 分類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李東垣은 일찍이 『內外傷辨論』에서 外感和 內傷을 구분하는 기준을 밝힌 바가 있으며, 이는 『醫學入門』의 腰痛 分類에 큰 영향을 주었다.

12. 『丹溪心法』과 『脈因證治』의 分類

元代 朱震亨은 『丹溪心法·腰痛』에서 原因에 따라 濕熱, 腎虛, 瘀血, 挫閃, 痰積의 5가지로 分類하였고⁴⁷⁾, 또 弦沈, 沈, 澁, 緩, 潛伏의 脈象에 따라 각각 虛腰痛, 滯腰痛, 瘀血腰痛, 濕腰痛, 痰腰痛의 5가지로 分類하였다⁴⁸⁾. 이는 『仁齋直指』에서 사용한 5가지 脈象 分類에 다시 5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朱震亨은 『脈因證治』에서 脈象에 따라 熱中, 腎虛, 痰血로 分類하고, 原因에 따라 腎虛, 濕熱, 瘀血, 外感, 失志, 鬱怒, 憂思로 分類하였다⁴⁹⁾.

이상에서 『丹溪心法』과 『脈因證治』에서 脈象에 따른 分類와 證에 따른 分類 중 중복을 제외하면 濕腰痛, 濕熱腰痛, 腎虛腰痛(虛腰痛, 房勞腰痛), 瘀血腰痛, 挫閃腰痛, 痰(積)腰痛, 滯腰痛, 外感腰痛(寒腰痛에 해당), 失志腰痛, 鬱怒腰痛, 憂思腰痛의 11가지가 되며, 이를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각각 濕

勞汗出, 衣裏冷濕, 久久得之. 腎(公對切)腰痛者, 僂使腫重, 引季脊痛, 因於墜墮, 惡血流滯, 及房勞疲力, 耗竭精氣, 致腰疼痛, 準此, 從不內外因補瀉施治.”

4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186-1187.

44) 李杲, 『東垣醫學全書東垣試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8. “『六元正紀大論』曰, 太陽所至爲腰痛. 又云, 巨陽(即太陽也)虛則腰背頭項痛. 足太陽膀胱之脈所過, 還出別下項, 循肩膊內, 挾脊抵腰中, 故爲病者, 項如拔, 挾脊痛, 腰似折, 髀不可以曲, 是經氣虛則邪客之, 痛病生矣. 夫邪者, 是風熱寒濕燥皆能爲病. 大抵寒濕多而風熱少.”

45)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大抵太陽少陰多中寒, 少陽厥陰多中風, 太陰陽明多中燥濕”

46) 李杲, 『東垣醫學全書東垣試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8. “然有房室勞傷, 腎虛腰痛者, 是陽氣虛弱不能運動故也. 『經』言, 腰者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敗矣. 宜腎氣丸, 鹿茸茴香丸類, 以補陽之不足也. 如膏粱之人, 久服陽藥, 醉以入房, 損其真陰, 腎氣熱. 腎氣熱, 則腰痛而不能舉, 久則髓減骨枯, 骨枯發爲骨痿, 宜六味地黃丸, 溫腎丸, 封髓丹之類, 以補陰之不足也. 『黃帝鍼經』卷第三雜病第八, 腰痛上寒, 取足太陽, 陽明. 腰痛上熱, 取足厥陰, 足之

三陰, 從足走入腹, 所經過處, 皆能爲痛. 治之, 當審其何經所過分野, 循其空穴而刺之. 審其寒熱而藥之. 假令足太陽令人腰痛引項脊背如重狀, 刺其郄中太陽二經出血, 餘皆倣此, 彼執一方, 治諸腰痛者, 固不通矣.”

47) 朱震亨, 『丹溪醫學全書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2. “腰痛主濕熱, 腎虛, 瘀血, 挫閃, 有痰積.”

48) 朱震亨, 『丹溪醫學全書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脈若弦而沈者爲虛, 沈者爲滯, 澁者瘀血, 緩者爲濕, 潛伏者是痰.”

49) 朱震亨, 『丹溪醫學全書脈因證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99. “【脈】尺脈粗常熱, 謂之熱中. 腰背痛, 脈大者, 腎虛. 脈澁者, 瘀血. 【因】腎虛而致. 有濕熱, 有瘀血, 有外感. 腎虛, 皆起於內. 蓋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 皆致腰痛. 故使氣結不行, 血停不禁, 遂成虛損, 血氣去之. 又有房勞過者多矣. 濕熱, 亦因腎虛而生焉. 腎者, 水也. 氣不利而成濕熱者, 因腎水涸, 相火熾, 無所榮制, 故濕熱相搏而成痛. 亦有虛勞, 外感濕氣, 內熱不行而成黨錮. 瘀血, 因用力過多, 墮墜折納, 瘀血不行. 外感, 因虛襲之. 外有腎風, 腎熱, 腎癢, 厥陰癢, 皆腰痛.”

腰痛, 濕熱腰痛, 房勞腰痛, 閃挫腰痛(瘀血腰痛), 痰腰痛, 食積腰痛, 寒腰痛, 失志腰痛(鬱怒腰痛, 憂思腰痛)의 8가지로 모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朱丹溪가 失志腰痛, 鬱怒腰痛, 憂思腰痛으로 細分한데 반해, 李梴은 鬱怒腰痛, 憂思腰痛을 失志腰痛의 아래에 예속하고 별도로 風腰痛(風熱, 風虛, 風寒濕), 勞傷腰痛을 추가하였다.

13. 『普濟方』의 分類(『仁齋直指』와 동일)

明代 朱橚은 『普濟方』에서 『仁齋直指』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⁵⁰⁾.

14. 『醫學正傳』의 分類

虞搏은 『醫學正傳·腰痛』에서 『三因極一病方證論』의 六經 分類를 따랐고⁵¹⁾, 또한 『丹溪心法』을 인용하여 原因에 따라 腎虛, 瘀血, 濕熱, 銼閃, 痰으로 分類하였다⁵²⁾.

또한 “腰痛의 脈은 다 沈弦하다. 沈弦하면서 緊한 경우는 寒이고, 沈弦하면서 浮한 경우는 風이고, 沈弦하면서 濡細한 경우는 濕이고, 沈弦하면서 實한

경우는 銼閃이다. 丹溪가 가로되 ‘脈은 반드시 沈하고 弦하다. 沈은 滯가 되고 弦은 虛가 된다. 澁은 瘀血이고 緩은 濕이고 滑과 伏은 痰이고 大는 腎虛이다.’라고 하였다.”⁵³⁾라고 하였다. 이로써 『仁齋直指』와 『丹溪心法』에서 각각 제시한 脈象에 따라서 寒, 風, 濕, 銼閃(挫閃), 滯, 瘀血, 痰, 虛(腎虛)의 8가지로 分類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虞搏은 朱丹溪의 學說을 따라 腰痛을 六經으로 分類하고, 또 原因에 따라 腎虛, 瘀血, 濕熱, 濕, 挫閃, 痰 및 腎著의 7가지로 分類하고, 『仁齋直指』와 『丹溪心法』의 脈象에 따라 寒, 風, 濕, 銼閃(挫閃), 滯, 瘀血, 痰, 虛(腎虛)의 8가지로 分類하였다.

『醫學正傳·腰痛』에서 사용된 腰痛 分類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여 정리하면, 寒(六經腰痛 포함), 風, 濕(腎著 포함), 濕熱, 挫閃, 痰, 瘀血, 虛(腎虛)의 8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이를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8가지 모두 서로 유사한데, 李梴이 失志腰痛(鬱怒傷肝, 憂思傷脾), 勞傷腰痛을 추가하고 食積腰痛은 痰腰痛의 아래에 예속하였다.

단, 『醫學正傳』의 滯腰痛은 『醫學入門·診脈』⁵⁴⁾에서 氣滯腰痛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醫學入門·腰痛』의 분류로는 失志腰痛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5. 『證治要訣』의 分類

戴元禮는 『證治要訣』에서 寒腰痛, 濕腰痛, 風濕腰痛, 腎虛腰痛과 閃挫腰痛, 勞役腰痛, 瀝血(瘀血)腰痛으로 分類하여 그 증상과 治法을 제시하였다⁵⁵⁾.

50)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0』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03.

51)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190. “『內經』曰, 足太陽脈令人腰痛, 引項脊背如重狀. 少陽腰痛, 如以針刺其皮中, 循循然不可以俯仰, 不可以顧. 陽明腰痛, 不可以顧, 顧如有見者, 善悲. 足少陰腰痛, 痛引脊內廉. 厥陰腰痛, 腰中如張弓弩弦. 太陰腰痛, 熱甚生煩, 腰下如有橫木居其中, 甚則遺洩. 又曰, 太陽所至爲腰痛. 巨陽虛則腰背項痛, 是動則病項如拔, 脊痛腰似折, 髀不可以曲. 又曰, 腰者腎之腑, 轉搖不能, 腎將憊矣. 脈經曰, 凡有所用力舉重, 若入房過度, 汗出如浴水, 則傷腎. 腎脹者, 腹滿引背中央然, 腰髀痛. 又有腎著之病, 從腰以下冷, 腰重如帶五千錢. 若夫腰痛之證, 雖有六經見候之不同, 銼閃腎著之或異, 或瘀血, 或風寒, 或濕痰流注, 種種不一, 原其所由, 未必不因房室過度, 負重勞傷之所致也, 經曰邪之所湊, 其氣必虛是也.”

52)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191. “丹溪曰, 有腎虛, 有瘀血, 有濕熱, 有銼閃, 有痰. 諸腰痛不可用補氣藥, 亦不宜峻用寒涼藥. 腎虛腰痛, 用杜仲, 黃柏, 龜板, 知母, 枸杞子, 五味子, 豬脊骨髓丸服. 瘀血宜行血順氣, 用補陰丸加桃仁, 紅花, 外用三棱針於委中穴出血, 以其血滯於下也. 濕宜燥濕行氣, 用黃柏, 杜仲, 蒼朮, 川芎之類. 戴氏曰, 疼之不已, 爲腎虛也. 日輕夜重者, 是瘀血也. 遇天陰及久坐而發者, 是濕也. 痰宜南星, 半夏, 加快氣藥佐之, 使痰隨氣運. 腰曲不能伸者, 針委中立愈. 腎著爲病, 其體重, 腰冷如冰, 飲食如故, 小便自利, 腰以下冷痛而重, 治宜流濕兼用溫藥. (以上丹溪方法, 凡七條.)”

53)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191. “凡腰痛時時失精, 飲食減少, 其脈沈滑而遲, 此爲可治. 腰痛之脈皆沈弦, 沈弦而緊者爲寒, 沈弦而浮者爲風, 沈弦而濡細者爲濕, 沈弦而實者爲銼閃. 丹溪曰, 脈必沈而弦, 沈爲滯, 弦爲虛, 澁者是瘀血, 緩者是濕, 滑者伏者是痰, 大者是腎虛也.”

5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457. “腰痛之脈, 必沈而弦, 沈爲氣滯, 弦大損腎元, 或浮而緊, 風寒所纏, 濕傷濡細, 實閃挫然. 瀉爲瘀血, 滑痰火煎, 或引背痛, 沈滑易痊(尺脈沈, 腰背痛, 時時失精, 食少, 脈沈滑而遲者, 可治.)”

55) 戴元禮. 秘傳證治要訣及類方.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9. pp.88-89. “腰者, 腎之所附, 皆屬腎. 有寒, 有濕, 有風, 有虛, 皆能作痛. 閃挫勞役而痛者, 宜生料五積散, 加炒桃仁五枚. 腰痛如鋸刀所刺, 大便黑, 小便赤黃或黑, 由血滯腰間, 多瀝血腰痛, 桃仁酒, 調黑神散. 若寒腰痛, 見熱則

이와 같이 『證治要訣』의 寒, 濕, 風濕, 腎虛, 勞役, 閃挫, 瘀血(瘀血)의 7가지 分類를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각각 寒腰痛(六經腰痛 포함), 濕腰痛, 風腰痛(風熱, 風虛, 風寒濕), 房勞腰痛, 勞傷腰痛,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과 유사한데, 李梴이 濕熱腰痛, 失志腰痛(鬱怒傷肝, 憂思傷脾), 痰腰痛을 추가하고, 食積腰痛은 痰腰痛의 아래에 예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 『醫學綱目』의 分類

樓英은 『醫學綱目腰痛』에서 『東垣試效方』에 따라 六經 중 太陽腰痛을 인용하고⁵⁶⁾, 또 “ [垣] 運氣腰痛은 5가지가 있다. 첫째는 寒이다. …… 둘째는 濕이다. …… 셋째는 寒과 濕이 섞여서 합쳐 것이다. …… 넷째는 燥이다. …… 다섯째 燥, 熱, 風, 寒이 섞여서 합쳐진 것이다. …… 濕熱한 藥은 많이 사용

하고 寒淸한 藥은 적게 사용한다.”⁵⁷⁾라고 하여 寒, 濕, 寒濕, 燥, 濕熱風寒 등 5가지 運氣腰痛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李東垣의 서적⁵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같이 樓英이 언급한 六經腰痛은 『醫學入門』의 分類와 비교하면 寒腰痛(六經腰痛 포함)은 유사하지만 5가지 運氣腰痛은 『醫學入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7. 『景岳全書』의 分類

張介賓은 『景岳全書腰痛』에서 巢元方の 5가지 原因 分類 대신에 表裏虛實寒熱의 6가지 證로 分類하였다⁵⁹⁾.

그는 다시 表證은 다시 風寒濕滯로, 寒證은 다시 外感寒邪內傷陽虛로, 熱證은 肝腎陰虛邪火蓄結로, 虛證은 腎虛氣虛肝腎虛의 10가지로 細分하였고⁶⁰⁾, 이와 별도로 閃挫腰痛 또는 瘀血腰痛을 함께 언급하였다⁶¹⁾.

또한 “무릇 쌓여서 점차 이르는 경우는 다 不足이고, 갑자기 통증이 심한 경우는 有餘가 많으며,

減, 見寒則增, 宜五積散, 每服加吳茱萸半錢. 若濕腰痛, 如坐水中, 蓋腎屬水, 久坐水濕處, 或爲雨露所着, 濕流入腎經, 以致腰痛, 宜滲濕湯, 不效, 宜腎着湯. 若風濕而腰痛者, 或左或右, 痛無常處, 牽引兩足, 宜五積散, 每服加防風半錢, 或加全蠍三個尤好. 小續命湯, 獨活寄生湯, 皆可選用, 仍吞三仙丹. 杜仲薑汁炒, 研末, 每一錢, 溫酒, 空心服, 名杜仲酒, 治腎虛腰痛, 兼治風冷爲患. 婦人血過多, 及素患血虛, 治腰痛者, 當益其血, 見婦人門. 若腎虛腰痛, 轉側不能, 嗜臥疲弱者, 大建中湯加川椒十粒, 吞下腰腎圓, 及生料鹿茸圓之類, 仍以茴香炒, 研末, 破開猪腰子, 作薄片, 不令斷, 層層摻藥末, 水紙裹, 煨熟, 細嚼酒蒸. 若因閃挫或癱撲傷損而痛者, 宜黑神散和復元通氣散, 酒調下. 不效, 則恐有惡血停滯, 宜先用酒調下蘇合香圓, 仍以五積散, 每服加大黃半錢, 蘇木半錢, 當歸倍元數. 若因勞役負重而痛, 宜用化氣飲, 或普賢正氣散.”

56) 樓英. 醫學綱目(下). 서울. 일증사. 1984. p.1197. “ [垣] 『六元正紀論』云, 太陽所至爲腰痛. 又云, 巨陽, 即太陽也, 虛則頭項腰痛. 足太陽膀胱之脈所過, 還出別下項, 循肩膊內, 挾脊抵腰中, 故爲病項如拔, 挾脊痛, 腰似折, 脾不可以曲, 是經氣虛則邪客之, 痛病生矣. 夫邪者, 是風熱濕燥寒皆能爲病, 大抵寒濕多而風熱少. 然有房室勞傷腎虛腰痛者, 是陽氣虛弱不能運動故也. 經云, 腰者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敗矣. 宜腎氣丸, 茴香丸之類, 以補陽之不足也. 膏梁之人, 久服湯藥, 醉以入房, 損其真氣, 則腎氣熱, 腎氣熱則腰痛而不能舉, 久則髓減骨枯, 發爲骨疼, 宜六味地黃丸, 滋腎丸, 封髓丹之類, 以補陰之不足也. 『靈樞』云, 腰痛上寒, 取足太陽陽明, 上熱, 取足厥陰, 不可俯仰, 取足少陽. 蓋足之三陽, 從頭走足, 足之三陰, 從足走腹, 經所過處, 皆能爲痛, 治之者當審其何經所過分野, 循其空穴而刺之, 審何寒熱而藥之. 假令足太陽令人腰痛, 引項脊背如重狀, 刺其郄中, 太陽二經出血, 餘皆倣此. 彼執一方治諸腰痛者, 固不通矣.

57) 樓英. 醫學綱目(下). 서울. 일증사. 1984. p.1205. “ [垣] 運氣腰痛有五, 一曰寒. 經云, 水鬱之發, 民病腰痛, 大關節不利, 屈伸不便. 又云, 太陽所至, 爲腰痛. 又云, 太陽之復, 腰脊反痛, 屈伸不便, 治以熱劑是也. 二曰濕. 經云, 太陰司天, 濕氣下臨, 腎氣上從, 當其時反腰痛, 動轉不便. 又曰, 太陽在泉, 濕淫所勝, 病腰似折, 亦治以熱劑是也. 三曰寒濕雜合. 經云, 太陰司天之政, 終之氣, 寒大舉, 濕大化, 病關節禁固, 腰痛, 治以燥熱是也. 四曰燥. 經云, 陽明司天, 燥淫所勝, 病腰痛, 治以苦溫是也. 五曰燥熱風寒雜合. 經云, 少陰司天之政, 水火寒熱, 持於氣交, 民病腰痛. 初之氣, 寒乃始, 陽氣鬱, 民反周密, 關節禁固, 腰痛, 治以濕熱多寒淸少也.”

58) 李杲. 李東垣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59)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64. “腰痛證, 舊有五辨. 一曰陽虛不足, 少陰腎衰. 二曰風痺. 風寒濕著腰痛. 三曰勞役傷腎. 四曰墜墮損傷. 五曰寢臥濕地. 雖其大約如此, 然而猶未悉也. 蓋此證有表裏虛實寒熱之異, 知斯六者庶乎盡矣. 而治之亦無難也.”
60)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464-465.
61)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65. “跌撲傷而腰痛者, 此傷在筋骨, 而血脈凝滯也, 宜四物湯加桃仁. 紅花. 牛膝. 肉桂. 玄胡. 乳香. 沒藥. 之類主之. 若血逆之甚而大便閉結不通者, 宜『元戎』四物湯主之, 或外以酒糟葱. 薑. 搗爛之, 其效尤速.”

內傷으로 稟弱한 경우는 다 不足이고, 外感으로 邪가 實한 경우는 有餘가 많다.”⁶²⁾고 하여, 張介賓은 『諸病源候論』의 ‘新舊’의 의미를 ‘虛實’로 해석하였다.

腰痛의 虛實이 나타나는 빈도에 대해 “腰痛의 虛證은 10 중 8·9이다.”⁶³⁾고 하였는데 이는 久腰痛에 해당하고, “實邪로 腰痛이 되는 경우는 10 중 2·3이다.”⁶⁴⁾라고 하였는데 이는 新腰痛에 해당한다.

이 외에 『景岳全書·腰痛』에서 “허리는 腎의 府이고 腎은 膀胱과 表裏가 된다. 따라서 經에 있으면 太陽에 속하고, 臟에 있으면 腎氣에 속한다. 또한 허리는 衝脈, 任脈, 督脈, 帶脈의 要會가 된다.”⁶⁵⁾고 하였는데, 衝脈, 任脈, 督脈, 帶脈 등의 奇經八脈이 腰痛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素問·刺腰痛論』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清代 林佩琴의 『類證治裁』에 영향을 주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張介賓은 腰痛의 分類에 대해 原因이나 脈象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表裏虛實寒熱의 六變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六變에 해당되지 않는 閃挫腰痛과 瘀血腰痛을 별도로 포함시켰으며, 新舊에 따른 分類은 六變 중 虛實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張介賓은 證의 六變에 따라 分類하였기 때문에 李梴이 原因에 따라 外感, 內傷雜病으로 分類한 것과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

18. 『醫學入門』의 分類

李梴은 『醫學入門·腰痛』에서 “허리가 새로 아픈 경우는 疏外邪, 清濕熱이 마땅하고, 오래되면 補腎에 理氣血을 겸한다.”⁶⁶⁾고 하여 『景岳全書·腰痛』과 마찬가지로 腰痛을 新舊에 따라 分類하되, 각각의

治法을 제시하였다.

한편 張伯臾는 『中醫內科學』에서 “明代에 이르러 新舊, 虛實로 귀납하였다.”⁶⁷⁾고 하였지만, 사실은 隋代에 巢元方이 이미 腰痛을 新舊로 分類하였고, 명대에 李梴과 張介賓이 虛實로 귀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李梴은 또한 寒腰痛(六經腰痛 포함), 濕腰痛, 濕熱腰痛, 風腰痛(風熱, 風虛, 風寒濕), 失志腰痛(鬱怒傷肝, 憂思傷脾), 痰腰痛, 食積腰痛,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 勞傷腰痛, 房勞腰痛 등의 10가지 명칭으로 分類하였다.

李梴은 『醫學入門·雜病提綱』에서 “雜病이란 때로는 外感의 風寒暑濕燥火의 氣를 兼하거나, 때로는 內傷의 宿食氣血痰鬱虛實의 實情을 兼하기도 한다. …… 따라서 『雜病分類』 앞에 제시하여 온갖 병의 大綱이 됨을 보이니, 그 나머지 證은 다 이것으로부터 변화하여 생긴다.”⁶⁸⁾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李梴이 分類한 10가지 腰痛 중 寒腰痛(六經腰痛 포함), 濕腰痛, 濕熱腰痛, 風腰痛(風熱, 風虛, 風寒濕)은 外感에 속하고, 失志腰痛(鬱怒傷肝, 憂思傷脾), 痰腰痛, 食積腰痛,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 勞傷腰痛, 房勞腰痛은 內傷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李梴은 腰痛을 分類함에 있어 먼저 外感和 內傷으로 分類하고 나서, 다시 外感에 대해 또 風寒暑濕燥熱로 세분하고 內傷에 대해 失志(鬱怒, 憂思), 痰, 食積, 閃挫(瘀血 포함), 勞傷, 房勞로 세분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分類는 陳無擇의 三因 分類와 비슷한 것 같지만, 李東垣이 『內外傷辨論』에서 外感和 內傷으로 症狀를 大別하여 치료한 원칙을 따른 것이다.

한편 李梴은 『醫學入門·傷寒』에서 『傷寒論』에서 언급한 太陽病 腰痛 외에 陽明, 少陽, 少陰, 太陰, 厥陰病의 腰痛 症狀과 處方을 보충하였다⁶⁹⁾.

62)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65. “凡積而漸至者皆不足, 暴病甚者多有餘, 內傷稟弱者皆不足, 外感邪實者多有餘.”

63)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64. “腰痛之虛證, 十居八九”

64)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65. “其有實邪而爲腰痛者, 亦不過十中之二三耳.”

65)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64. “腰爲腎之府, 腎與膀胱爲表裏, 故在經則屬太陽, 在臟則屬腎氣, 而又爲衝任督帶之要會.”

6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4. “腰新痛宜疏外邪, 清濕熱, 久則補腎, 兼理氣血.”

67) 張伯臾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545.

6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14. “雜病者, 或兼外感風寒暑濕燥火之氣, 或挾內傷宿食, 氣血痰鬱虛實之情. …… 所以提之於前, 以見其爲百病大綱, 其餘證, 皆由此變出.”

IV. 考 察

『醫學入門·腰痛』에서 인용한 서적으로 살펴볼 때,腰痛의 분류 기준은 六經, 奇經(別絡 포함), 病因, 新舊, 脈象, 臟腑(內因의 病所), 外傷(不內外因 중 일부), 運氣 등으로 개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八綱(六變)이 있다.

腰痛의 분류 기준이 발달한 과정을 살펴보면, 六經(經脈)과 奇經(別絡 포함)이 가장 먼저 사용되고, 病因과 新舊는 隋代 巢元方에 의해 처음 사용되고, 脈象은 宋代 嚴用和에 의해 처음 사용되고, 臟腑(內因의 病所)와 外傷(不內外因 중 일부)은 南宋代 陳無擇에 의해 처음 사용되고, 運氣는 明代 樓英에 의해 처음 사용되고, 八綱(六變)은 明代 張景岳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즉 六經(經脈)과 奇經(別絡 포함)의 기준이 가장 먼저 발명되어 사용되다가, 점차 病因, 脈象, 五臟, 運氣 등의 기준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八綱(六變)의 기준이 가장 나중에 사용되었다. 그 중 運氣는 후세의腰痛 分類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八綱(六變)은 『醫學入門』에 반영되지 않았다.

腰痛의 분류 기준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9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六經의 分類 기준은 『素問·刺腰痛論』에 처음 적용되었다.

『素問』의 내용은 최초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六經腰痛의 症狀와 치료를 매우 구체적이다. 다만 태음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어서 완전하지 않으며, 아울러 ‘足太陽脈’ ‘足少陰’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三陰三陽(六經)을 十二經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漢代에 이르러 張仲景은腰痛에 대해서 六經 分類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傷寒論』에서

는 太陽病에서만腰痛을 언급하였으며, 『金匱要略』에서는 六經腰痛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虛勞腰痛, 腎著腰痛, 痰腰痛의 症狀와 治方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張仲景의 『傷寒論』은 後世에 六經辨證의 鼻祖로 받아들여졌다는 관점으로 볼 때腰痛에 대해 六經 分類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傷寒論』이 外感熱性疾患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腰痛은 비중이 적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비록 언급하더라도 外感病에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素問』에서 언급한 六經腰痛을 外感病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太陽病의 증상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南宋代 陳無擇은腰痛의 分類에 대해서 外因, 內因, 不內外因의 3가지 原因으로 大別한 동시에, 다시 外因에 대해 『素問』의 三陰三陽 分類를 받아들여 ‘六經’을 기준으로腰痛을 분류하였다. 특히 그는 太陰을 보충하여 불완전한 『內經』의 六經 分類를 완성하였다.

또한 그는 “대체로 太陽과 少陰은 寒邪에 적중한 경우가 많고, 少陽과 厥陰은 風熱이 많고, 陽明과 太陰은 燥濕이 많다.”⁷⁰⁾ 하여 六經腰痛의 頻도가 六氣의 특성과 밀접하다는 관점을 피력하였다. 그 내용으로 볼 때 陳無擇은 ‘六經’을 經脈으로 인식하기보다 運氣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고 미루어볼 수 있다.

金代 李東垣은 『素問·六元正紀大論』의 六經腰痛 중 太陽腰痛 症狀를 인용하면서 太陽腰痛은 寒濕이 많고 風熱이 적다고論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六經腰痛의 分類와 症狀이 잘 갖추어진 『素問·刺腰痛論』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李東垣은 비록 六經腰痛 중 하나인 太陽腰痛의 症狀를 『素問·六元正紀大論』에 따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체계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거나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太陽腰痛의 주된 원인이 寒濕이라고 지적한 것은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

6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186-1187. “太陽腰痛]頂連尻, 陽明不可回顧, 少陽如針刺(太陽證, 分有汗無汗, 傷寒, 人參順氣散, 傷風, 敗毒散, 或通氣防風湯, 粗人, 刺委中血, 甚妙, 太陽合陽明, 葛根湯, 少陽, 柴胡桂枝湯, 與頭痛參看) 少陰腰痛背及脊, 太陰遺溺(腰下如橫木, 甚則遺溺) 厥(陰)張弓(厥陰, 風熱故, 腰, 強急, 如弓, 三陰, 通用五積散, 加杜仲附子, 或加於黃芪建中湯, 當歸四逆湯中, 尙當於雜病, 腰痛, 參看).”

70)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大抵太陽少陰多中寒, 少陽厥陰多中風, 太陰陽明多中燥濕”

다. 그의 의견은 明代 樓英이 따랐다.

明代 虞搏은 陳無擇의 六經 分類를 따랐는데, 동시에 『丹溪心法』과 『仁齋直指』를 참고하여 病因과 脈象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腰痛을 다양한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分類하였다.

李梴은 10가지 腰痛을 제시하고, 그 중 寒腰痛은 傷寒의 六經證에 근거하여 六經腰痛으로 세분하여 症狀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治療方法까지 보충하였다.

六經腰痛의 症狀은 『素問刺腰痛論』과 『三因極一病方證論』에서 근거하였으며, 治療方法으로 太陽은 人參順氣散(傷寒), 敗毒散, 通氣防風湯(傷風)의 처방과 건강한 사람은 委中穴의 瀉血을 제시하고, 陽明은 糞石腰痛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太陽陽明의 合病은 葛根湯을 제시하고, 少陽은 柴胡桂枝湯을 제시하고, 三陰病의 腰痛은 세분하지 않고 五積散, 黃芪建中湯, 當歸四逆湯에 杜仲, 附子를 加味한 것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李梴이 腰痛에서 六經腰痛은 「傷寒雜證」을 참고하라고 하였고, 그가 傷寒門에서 말한 六經은 「六經正病」에서 六經에서 발현하는 症狀이 經脈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⁷¹⁾에 근거해 볼 때, 李梴이 언급한 六經腰痛의 六經은 ‘經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李梴은 六經腰痛을 寒腰痛으로 귀결한 이유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李梴이 말한 六經腰痛은 傷寒病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陳無擇이 太陽과 少陰은 寒邪에 적응한 경우가 많고, 少陽과 厥陰은 風熱이 많고, 陽明과 太陰은 燥濕이 많다는 관점과 다르다.

다시 말하면, 陳無擇은 六經腰痛을 寒에 국한하지 않고 寒, 風, 熱, 燥, 濕의 五氣를 각각 六經의 속성과 배합하였기에, 太陽腰痛, 少陰腰痛은 寒腰痛과, 少陽腰痛, 厥陰腰痛은 風腰痛 또는 熱腰痛으로,

陽明腰痛, 太陰腰痛은 燥腰痛 또는 濕腰痛과 주로 관련이 있다. 즉, 六經을 기준으로 한 여러 分類가 病因을 기준으로 한 여러 分類와 각각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李梴은 六經腰痛을 寒腰痛의 한 가지로 국한하였기에, 六經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病因을 기준으로 한 분류 중 한 가지에 속하게 하였다.

종합하면, 六經을 기준으로 한 腰痛 分類의 변화는 『素問』, 『三因極一病方證論』과 『醫學入門』에 반영되어 있는데, 六經의 개념은 각각 서로 달라서 『素問』과 『醫學入門』은 經脈으로 인식한 데 반하여 『三因極一病方證論』은 運氣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세 서적에 나타난 名稱, 症狀, 治療를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듯이, 六經 分類에 대해 『素問刺腰痛論』에서 그 症狀와 刺法을 처음 나타나며, 南宋代 陳無擇이 『素問』의 分類 중 太陰의 症狀를 더하여 불완전한 六經 分類를 완성하였고, 다시 李梴이 治方을 제시함으로써 임상실제에서 六經腰痛의 分類 기준과 治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하였다.

둘째, 奇經(別絡 포함)의 分類 기준은『素問刺腰痛論』에 처음 적용되었다.

『素問』에서 奇經(別絡 포함)을 기준으로 한 腰痛의 症狀와 刺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任脈, 督脈, 衝脈, 帶脈이 腰痛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없다.

南宋代 陳無擇은 奇經 分類에 대해 “가령 經脈 중에서 解脈, 散脈, 同陰會, 陰陽維, 衝絡, 直陽, 飛陽, 肉里, 尻交 等穴이 있는데, 모두 六經의 流走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별도로 운행하여 각각 주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모두 번잡하게 인용하지 않는다.”⁷²⁾고 하였다. 그는 비록 奇經腰痛을 언급하였지만 이를 체계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明代 張介賓은 『景岳全書腰痛』에서 “허리는 衝脈, 任脈, 督脈, 帶脈의 要會가 된다.”⁷³⁾라고 하였

7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7-1090. “太陽 …… 以其脈上連風府, 故頭項背腰脊強. …… 陽明 …… 以其經中客邪, 故目痛鼻乾身. 少陽 …… 以其脈循脇絡於耳, 故風熱上壅, 不利則耳聾脇痛. …… 太陰 …… 以其脈布胃中, 絡於咽嗑, 故腹滿或痛, 而嗑喉下乾燥. …… 少陰 …… 以其脈起於足心貫腎, 絡於肺繫, 故舌乾口燥而渴. 厥陰 …… 以其脈循陰器, 絡於肝, 故唇青舌卷.”

72)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56-157. “其如經中有解脈, 散脈, 同陰會, 陰陽維, 衝絡, 直陽, 飛陽, 肉里, 尻交等穴, 皆不出六經流注, 但別行, 各有所主, 不欲繁引.”

73)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Table 1. Comparison of 『So Mun』, 『San Yin Fang』 and 『Yi Xue Ru Men』 on Classification of LBP

『素問』			『三因極一病方證論』		『醫學入門』		
名稱	症狀	治療	名稱		名稱	症狀	治療
足太陽脈	令人腰痛, 引項脊尻背如重狀, 刺其郄中	太陽正經出血, 春無見血	太陽	引項脊尻, 背如重狀	太陽	頂連尻	人參順氣散(傷寒) 敗毒散(傷風) 通氣防風湯(傷風) 刺委中血(粗人)
陽明	令人腰痛, 不可以顧, 顧如有見者, 善悲	刺陽明於脗前三疝, 上下和之出血, 秋無見血	陽明	不可以顧, 顧則如有所見, 善悲	陽明	不可回顧	葛根湯 (太陽合陽明)
少陽	令人腰痛, 如以鍼刺其皮中循循然, 不可以俛仰, 不可以顧	刺少陽成骨之端出血, 成骨在膝外廉之骨獨起者, 夏無見血	少陽	如針刺其皮, 循循然, 不可俯仰, 不可以顧	少陽	如錐刺	柴胡桂枝湯
(太陰 없음)			太陰	煩熱, 腰下如有橫木居其中, 甚則遺洩.	太陰	腰下如橫木, 甚則遺溺	
足少陰	令人腰痛, 痛引脊內廉	刺小陰於內踝上二疝, 春無見血, 出血太多, 不可復也		痛引脊內.	少陰	腰痛背及脊	五積散, 加杜仲, 附子 或加於黃芪建中湯, 當歸四逆湯 (三陰通用)
厥陰之脈	令人腰痛, 腰中如張弓弩弦	刺厥陰之脈, 在臑踵魚腹之外, 循之累累然, 乃刺之. 其病令人善言 默默然不慧, 刺之三疝		腰中強急, 如張弩弦狀.	厥陰	張弓	

다. 그는 衝脈, 任脈, 督脈, 帶脈 등의 奇經이 腰痛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여 奇經을 기준으로 한 腰痛 分類에 衝脈, 任脈, 督脈, 帶脈을 포함시켰다.

奇經을 기준으로 한 腰痛 分類 체계에 대한 내용은 다시 清代 林佩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는 “허리가 衝脈, 任脈, 督脈, 帶脈의 요충지이다. 腰痛이 생기는 이유는 腎氣가 본래 虛한 데에 風寒濕熱의 邪氣가 다 虛한 틈을 타서 들어오면 곧 모든 奇經이 또한 모두 거기에 매어있다.”⁷⁴⁾고 하였다.

p.464. “腰爲腎之府, 腎與膀胱爲表裏, 故在經則屬太陽, 在臟則屬腎氣, 而又爲衝任督帶之要會.”

74) 林佩琴, 類證治裁, 臺北. 旋風出版社. 1978. pp.429-431. “經言腎經腰痛者, 內傷房勞也. 而又爲衝任督帶之要會, 其

이처럼 그는 奇經을 기준으로 분류한 腰痛은 그 원인이 모두 腎虛에 있음을 발명하였다.

이에 대해 세 서적에 나타난 내용을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셋째, 病因의 分類 기준은 隋代 巢元方이 『諸病源候論』에서 처음 적용하였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陳無擇에 이르러 비교적 완성된 체계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內經』에서 일찍이 腎虛, 外邪, 濕邪, 寒濕, 天時, 內傷, 瘀血 등의 病因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六經

所由致痛者, 以腎氣本虛, 而風寒濕熱之邪, 皆可乘虛而入, 卽諸奇經亦多統繫焉.”

Table 2. Comparison of 『So Mun』, 『Jing Yue Quan Shu』 and 『Lei Zheng Zhi Cai』 on Classification of LBP

奇經(別絡 포함)		『素問刺腰痛論』	『景岳全書』	『類證治裁』
名稱	別稱			
衝脈		언급 없음	奇經腰痛 분류에 포함	원인이 모두 腎虛
任脈				
督脈				
帶脈				
陽蹻脈	同陰脈	痛如小錘居其中 怫然腫	언급 없음	언급 없음
陰蹻脈	昌陽脈	痛引膺 目眈眈然 甚即反折 舌卷不能言		
陽維脈		痛上怫然腫		
陰維脈	飛陽脈	痛上 怫怫然 甚則悲以恐		
足太陽之別絡	解脈	痛而引肩 目眈眈然 時遺洩 如引帶常如折腰狀 善恐		
足太陽之外絡	衡絡脈	不可以俛仰 仰則恐仆 得之重傷腰 衡絡絕 惡血歸之		
足太陽之中經	會陰脈	痛上漑漑然汗出 汗乾 令人欲飲 飲已欲走		
足少陽脈	肉里脈	不可以欬 欬則筋縮急		
足太陰之別脈	散脈	熱甚生煩 腰下如有橫木居其中 甚則遺洩		

分類와 奇經(絡脈 포함) 分類와 달리, 病因을 기준으로 한 腰痛의 명칭, 증상, 치료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기에 病因을 기준으로 한 체계적 분류는 찾아볼 수 없다.

漢代 張仲景은 『金匱要略』에서 腎著腰痛(寒濕), 虛勞腰痛(腎虛), 痰腰痛을 언급하였고, 東漢代 『華佗中藏經』에서도 心虛腰痛, 骨絕腰痛을 언급하였으나, 역시 病因을 기준으로 한 分類 체계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隋代 巢元方에 이르러 비로소 病因과 관련한 분류가 처음 시도되었는데, 그는 '少陰'(腎虛), '風痺'(腎著), '腎虛'(勞役), '腎腰'(閃挫), 寢臥濕地(濕)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동시대 孫思邈은 巢元方の 분류기준에 따라 處方과 刺法, 導引의 治療法을 제시하였고, 唐代 王燾는

5가지 분류에서 '少陰'과 '腎虛'를 합하고 다시 卒腰痛, 久腰痛의 기준(新舊)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巢元方이 사용한 분류기준은 하나의 원칙으로 개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少陰'(腎虛), '風痺'(腎著), '腎虛'(勞役)는 모두 五臟 중 腎과 관련이 있지만, 少陰은 腎虛腰痛 또는 房勞腰痛을 가리키는데 內傷(『醫學入門』 기준) 또는 不內外因(『三因極一病方證論』 기준)에 속하며, 風痺(腎著)는 濕腰痛 또는 寒濕腰痛에 해당하여 外感(『醫學入門』 기준) 또는 不內外因(『三因極一病方證論』 기준)에 속하며, '腎腰'(閃挫)는 瘀血腰痛 또는 閃挫腰痛에 해당하여 內傷(『醫學入門』 기준) 또는 不內外因(『三因極一病方證論』 기준)에 속하며, 寢臥濕地(濕)는 濕腰痛에 해당하여 外感(『醫學入門』 기준)에 속한다.

南宋代 陳無擇은 外因, 內因, 不內外因의 3가지

原因에 따라 六經腰痛(이상은 外因에 속함),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이상은 內因에 속함), 腎著腰痛, 腎腰痛, 房勞疲勞腰痛(이상은 不內外因에 속함)의 7가지로 分類하였다. 즉, 陳無擇은 病因에 기초하여 일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처음으로 완성하였다.

楊士瀛은 病因 分類를 더욱 보충하여 風, 濕, 冷, 熱, 血, 氣, 水, 瘀血, 失志, 勞力 등 10가지로 확대하였다.

이후 病因을 기준으로 한 분류 체계는 醫家마다 각각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元代 朱震亨은 虛, 滯, 瘀血, 痰의 4가지로 분류하고, 明代 虞搏은 腎虛, 瘀血, 濕熱, 銜閃, 痰의 5가지로 분류하고, 戴元禮는 寒, 濕, 風濕, 腎虛, 閃挫, 勞役, 瀝血(瘀血)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 李梴은 寒, 濕, 濕熱, 風(風熱, 風虛, 風寒濕), 失志(鬱怒傷肝, 憂思傷脾), 痰, 食積, 閃挫(瘀血腰痛 포함), 勞傷, 房勞의 10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李梴은 腰痛을 分類함에 있어 먼저 外感과 內傷으로 分類하고 나서, 다시 外感에 대해 또 風, 寒, 暑, 濕, 濕熱로 세분하고 內傷에 대해 失志(鬱怒, 憂思), 痰, 食積, 閃挫(瘀血 포함), 勞傷, 房勞로 細分하였다. 이러한 分類 方法은 陳無擇의 三因 分類(外因, 內因, 不內外因)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李東垣의 『內外傷辨論』에 따라 外感과 內傷으로 分類한 것이다. 그의 腰痛 分類는 清代 沈金鰲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李梴 이후에 李中梓는 寒, 濕, 風, 熱, 閃挫, 瘀血, 氣滯, 痰積, 腎虛의 9가지로 분류하고, 秦景明은 風濕, 寒濕, 濕熱(이상 外感), 瘀血停滯, 怒氣鬱結, 痰注停積, 腎陽不足, 腎陰火旺(이상 內傷)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

清代 張璐와 林佩琴은 標本의 개념을 더하여 腎虛의 本(1가지)과 風, 風寒, 風熱, 風濕, 寒, 濕, 寒濕, 濕熱, 閃挫, 瘀血(惡血), 氣滯, 痰(積)의 標(12가지)의 13가지로 분류하였다.

넷째, 新舊의 名稱은 唐代 王燾의 『外臺秘要』에서 처음 나타나지만, 명확한 기준과 개념은 隋代 巢元方이 『諸病源候論』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唐代 王燾는 『外臺秘要』에서 風濕腰痛, 腎著腰痛,

腎虛腰痛, 腎腰痛, 卒腰痛, 久腰痛의 6가지를 제시하였기에 新腰痛과 久腰痛의 명칭이 『外臺秘要』에서 처음 나타난다.

隋代 巢元方에 이르러 腰痛이 갑자기 생기는 것을 ‘卒腰痛’이라고 하고, 반복하여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을 ‘久腰痛’이라고 하여 新舊의 기준과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明代 李梴은 新腰痛에 疏外邪, 清濕熱이 마땅하고 久腰痛에 補腎에 理氣血을 兼한다고 하여 腰痛의 新舊에 따라 治法이 다를 것을 發明하였다.

張介賓은 久腰痛은 不足에 속하고 新腰痛은 有餘에 속하며, 內傷으로 稟弱한 경우는 다 不足이고, 外感으로 邪가 實한 경우는 有餘가 많다고 함으로써 腰痛의 新舊에 따라 각각 虛實이 다를 것을 發明하였다.

다섯째, 脈象의 分類 기준은 宋代 嚴用和가 『濟生方』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腰痛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脈象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宋代 嚴用和이다. 즉, 緊浮細實의 脈象에 따라 각각 寒, 風, 濕, 銜閃의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腎虛가 腰痛의 근본적인 原因이라고 하였다.

元代 朱震亨은 또 弦沈沈澁緩潛伏의 脈象에 따라 각각 虛腰痛, 滯腰痛, 瘀血腰痛, 濕腰痛, 痰腰痛의 5가지를 추가하였다.

明代 虞搏은 두 사람의 學說을 합하여 겹치는 것을 제외하고 脈象에 따라 寒, 風, 濕, 銜閃(挫閃), 滯, 瘀血, 痰, 虛(腎虛)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

李梴은 『醫學入門診脈』에서 腰痛의 本脈이 沈弦이라고 하고, 浮緊濡細沈實澁滑弦大的 脈象에 따라 風, 寒, 濕, 氣滯, 挫閃, 瘀血, 痰, 腎虛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⁷⁵⁾.

이를 『醫學入門腰痛』의 분류와 비교하면, 氣滯는 失志腰痛에 해당하고 瘀血은 挫閃의 아래에 예속하고 腎虛는 房勞에 해당하므로 風, 寒, 濕, 失志, 挫閃, 痰, 房勞의 7가지 腰痛에 대한 脈象을 제시한 것이다.

75)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457. “腰痛之脈, 必沈而弦, 沈爲氣滯, 弦大損腎元, 或浮而緊, 風寒所纏, 濕傷濡細, 實閃挫然, 澁爲瘀血, 滑痰火煎, 或引背痛, 沈滑易痊(尺脈沈, 腰背痛, 時時失精, 食少, 脈沈滑而遲者, 可治.)”

秦景明은 腰痛을 風濕, 寒濕, 濕熱, 瘀血, 怒氣, 痰注, 腎陽不足, 腎陰火旺의 8가지 病因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각각에 대해 浮澁, 沈緊, 沈數, 芤澁, 沈結, 尺潛伏, 微遲, 細數躁疾의 脈象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臟腑(內因의 病所)의 分類 체계는 南宋代 陳無擇이 『三因極一病方證論』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內經』에서 일찍이 腰痛이 臟腑와 관련이 깊다는 기록은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素問 脈要精微論』에서 腎이 虛하면 허리를 돌리지 못한다고⁷⁶⁾ 하고, 『素問 藏氣法時論』에서 腰痛이 心과 연관이 있다고⁷⁷⁾ 하고, 『素問 刺熱論』에서 脾熱로 인해 腰痛이 생긴다고⁷⁸⁾ 하고, 『靈樞本神』에서 盛怒로 失志하여 腎을 傷하면 腰痛이 발생한다고⁷⁹⁾ 하고, 『素問 標本病傳論』에서 胃病과 膀胱病이 傳하여 腰痛이 된다고⁸⁰⁾하고,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小腸病으로 腰痛이 발생한다고⁸¹⁾ 하였다.

즉, 『內經』에서 五臟 중 肺를 제외한 肝·心·脾·腎의 四臟과 六腑 중 胃, 小腸, 大腸의 三腸의 7개의 臟腑가 腰痛과 연관성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臟腑를 기준으로 한 체계적 분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東漢代 『華佗中藏經』에서 心虛腰痛⁸²⁾ 하나에 대해서만 症狀를 언급하였다.

南宋代 陳無擇에 이르러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를 모두 內因으로 개괄하였다. 그는 『內經』과

달리 臟腑 중 腎·肝·脾의 三臟으로만 歸結하였지만, 최초로 臟腑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元代 朱震亨은 陳無擇의 기준에 따라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明代 李梴은 陳無擇의 內因 분류를 ‘失志腰痛’으로 命名하고, 그 아래에 다시 鬱怒傷肝, 憂思傷脾의 2가지로 세분하였다. 그가 陳無擇의 분류를 수정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李梴이 ‘失志傷腎’에 대해 긍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房勞腰痛이 이미 腎虛에 해당하므로 失志傷腎과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첫째 이유는 『醫學入門』에서 ‘失志傷腎’⁸³⁾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둘째의 이유가 더욱 타당한데, 그는 內傷腰痛에 대해 “心血이 왕성하지 못하여 腰痛이 생기며 얼굴빛이 검게 되는데, …… 虛한 경우는 心과 腎을 모두 補해야 한다.”⁸⁴⁾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그는 ‘失志’는 腎을 상할 뿐만 아니라 心을 傷하게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총괄하면 李梴은 臟腑(內因의 病所)를 기준으로 腰痛을 分類할 때, 心, 肝, 脾, 腎을 고려하고 肺만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外傷(不內外因 중 일부)의 分類 기준은 南宋代 陳無擇이 『三因極一病方證論』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內經』에서 腰痛의 원인을 다양하게 언급하였으나 外傷에 대한 언급을 찾지 어렵고, 다만 『素問 刺腰痛論』에서 瘀血과 관련한 언급⁸⁵⁾을 찾을 수 있다.

東漢代 『華佗中藏經』에서 비록 骨絕腰痛의 症狀를 언급하였으나⁸⁶⁾ 이는 腎虛와 관련된 표현이며

7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7. “腰者腎之府, 轉搖不能, 腎將備矣.”

7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9. “心病者, …… 虛則胸腹大, 脇下與腰相引而痛.”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9. “脾熱病者, 先頭重煩痛, 煩心煩青, 欲嘔身熱, 熱爭則腰痛不可用俯仰.”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8. “腎盛怒而不止, 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俯仰屈伸.”

8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2. “胃病脹滿, 五日少腹脹脊痛. …… 膀胱病, 小便閉, 五日少腹脹 腰脊痛.”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9. “小腸病者, 小腹脹, 腰脊控牽而痛.”

82) 著者 未詳. 華佗中藏經. 타이완. 자유출판사. 1978. p.17. “(心)虛則多悸, 惕然無眠, 胸腹及腰背引痛, 喜悲時眩仆.”

83)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358. “凡腎病皆因快情縱慾 失志傷腎 過服丹藥.”

8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5. “失志則心血不旺, 不能攝養筋脈, 腰間鬱鬱膨脹不伸, 令人虛羸面黑, 不能久立遠行, 七氣湯倍茯苓, 加沈香, 乳香少許. 虛者, 當心腎俱補, 人參養榮湯加杜沖, 牛膝.”

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53. “衝絡之脈, 令人腰痛, 不可以俯仰, 仰則恐仆, 得之舉重傷腰, 衝絡絕, 惡血歸之, 刺之在郄陽筋之間, 上數寸, 衝居爲二疔出血.”

86) 著者 未詳. 華佗中藏經. 타이완. 자유출판사. 1978. p.17. “骨絕, 腰脊痛, 腎中重, 不可反側, 足膝後平者, 五日死.”

外傷性 ‘骨折’과 다르다.

隋代 巢元方은 『諸病源候論』에서 처음으로 腎腰痛을 언급하였는데⁸⁷⁾, 이 요통은 挫閃腰痛에 해당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分類를 사용하지 않았다.

唐代 王燾의 『外臺秘要』⁸⁸⁾와 宋代 嚴用和의 『濟生方』에서 또한 腎腰痛을 언급하였지만 아직 체계적인 分類를 사용하지 않았다.

南宋代 陳無擇에 이르러 不內外因의 아래 腎著腰痛, 腎腰痛, 房勞疲勞腰痛의 3가지로 細分하였다. 그러나 腎著腰痛은 후세에 外感六氣로, 房勞疲勞腰痛은 內傷腎虛로 분류하고 있으며, 外傷性 腰痛으로 다루지 않았다.

元代 朱震亨은 ‘腎腰痛’의 명칭 대신 ‘挫閃腰痛’을 사용하였고, 明代 虞搏은 ‘挫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둘 다 不內外因 또는 外傷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지는 않았다.

張介賓은 閃挫, 瘀血이 六變(表裏虛實寒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추가하였는데, 그는 閃挫腰痛, 瘀血腰痛이 內傷 雜病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李梴은 瘀血腰痛을 閃挫, 跌撲, 墜墮로 인한 腰痛으로 포함시켰는데⁸⁹⁾, 이러한 분류는 閃挫, 跌撲, 墜墮 등으로 인한 外傷性 腰痛이 낮에는 덜하고 밤에 심해지는 ‘瘀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치료도 內傷의 ‘行血順氣’를 사용하고 外科的 治療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덟째, 運氣의 分類 기준은 明代 樓英이 『醫學綱目』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素問』의 運氣篇, 즉 『六微旨大論』에서 火不及⁹⁰⁾, 水不及⁹¹⁾과 『五常政大論』에서 太陰司天⁹²⁾과

『六元正紀大論』에서 少陰司天⁹³⁾, 水鬱⁹⁴⁾ 등등 여러 곳에서 일찍이 運氣가 腰痛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明代 樓英은 運氣에 따라 寒, 濕, 寒濕, 燥, 濕熱, 風寒 등의 5가지로 分類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그가 李東垣의 學說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李東垣의 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이 기준은 후세에 『醫學入門』 등 다른 醫書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아홉째, 八綱(六變)의 分類 기준은 明代 張介賓이 『景岳全書』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明代 張介賓은 證의 六變에 따라 表裏虛實寒熱로 처음 분류하였다. 그는 동시에 閃挫, 瘀血과 같이 六變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腰痛은 별도로 추가하였다.

張介賓의 八綱(六變) 分類는 『醫學入門』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景岳全書』와 『醫學入門』이 그 저술시기가 매우 비슷하여 서로 참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V. 結 論

『醫學入門·腰痛』에서 인용한 서적을 중심으로 李梴이 채택한 腰痛의 分類가 어떤 서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다시 어느 서적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 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醫學入門·腰痛』에서 인용한 서적으로 살펴볼 때, 腰痛의 분류 기준은 六經, 奇經(別絡 포함), 病因, 新舊, 脈象, 臟腑(內因의 病所), 外傷(不內外因 중 일부), 運氣 등으로 개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八綱(六變)이 있다.

2. 六經 分類는 『素問·刺腰痛論』에서 太陰이 빠진 형태로 처음 나타나며, 南宋代 陳無擇이 太陰의 症狀를 더하여 불완전한 六經 分類를 완성하였고, 다

87)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89. “凡腰痛有五. …… 四曰 腎腰, 墜墮傷腰, 是以痛.”

88)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430-434.

8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6. “閃到 跌撲墜墮, 以致血瘀腰痛, 日輕夜重, 宜行血順氣.”

9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5. “歲火不及, …… 民病 …… 脇下與腰背相引而痛 甚則屈不能伸.”

9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6. “歲水不及, …… 民病 …… 腰股痛發.”

9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56. “太陰司天, …… 當其時, 反腰痛腫, 動轉不便也.”

9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8. “凡此少陰司天之政, …… 民病 …… 腰痛.”

9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74. “水鬱之發, …… 民病, 寒客心痛, 腰痛腫.”

시 李梴이 治方을 제시함으로써 六經腰痛의 分類 체계를 보충하였다.

3. 奇經(別絡 포함) 分類는 『素問·刺腰痛論』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任脈, 督脈, 衝脈, 帶脈이腰痛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없다가, 明代 張介賓이 衝脈, 任脈, 督脈, 帶脈을 추가하였고, 清代 林佩琴은 奇經腰痛의 원인이 모두 腎虛에 있음을 발명하였다. 그러나 李梴은 이 분류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다.

4. 病因 分類는 隋代 巢元方이 『諸病源候論』에서 처음 제시하였으나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陳無擇에 이르러 분류체계를 처음으로 완성하였다. 病因을 기준으로 한 분류 체계는 醫家마다 각각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특히 李梴은 李東垣의 學說에 따라 外感和 內傷으로 分類하고 나서, 이를 다시 細分하는 다단계 분류를 사용하였다. 그의 分類는 清代 沈金鰲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5. 新舊의 名稱은 唐代 王燾의 『外臺秘要』에서 처음 나타나고, 명확한 기준과 개념은 隋代 巢元方이 처음 제시하였다. 李梴은 腰痛의 新舊에 따라 治法이 다를 것을 發明하고, 張介賓은 腰痛의 新舊에 따라 각각 虛實이 다를 것을 發明하였다. 李梴은 이를 반영하였다.

6. 脈象의 分類는 宋代 嚴用和가 『濟生方』에서 처음 적용하고 元代 朱震亨이 추가하고, 明代 虞搏은 두 사람의 學說을 합하여 8가지로 분류하였다. 李梴은 이를 반영하였다.

7. 臟腑(內因의 病所)의 分類는 南宋代 陳無擇이 『三因極一病方證論』에서 처음 제시하였는데, 明代 李梴은 陳無擇의 內因 분류를 ‘失志腰痛’으로 命名하고, 그 아래에 다시 鬱怒傷肝, 憂思傷脾의 2가지로 세분하였다. 李梴은 이를 변형하여 반영하였다.

8. 外傷(不內外因 중 일부)의 分類 기준은 南宋代 陳無擇이 『三因極一病方證論』에서 처음 제시하였으나 後世에 사용한 기준과 다르다. 특히 張介賓은 閃挫腰痛, 瘀血腰痛이 內傷 雜病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李梴은 瘀血腰痛을 閃挫, 跌撲, 墜墮로 인한 外傷性腰痛으로 포함시켰다.

9. 運氣와 관련된 내용은 『素問』의 運氣篇에 비

록 나타나지만, 分類 기준은 明代 樓英은 『醫學綱目』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그는 運氣에 따라 寒, 濕, 寒濕, 燥, 濕熱風寒 등의 5가지로 分類하였으나 後世에 李梴 등 다른 醫家들이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10. 八綱(六變)의 分類 기준은 明代 張介賓이 『景岳全書』에서 처음 적용하였으나, 이 分類는 李梴은 반영하지 않았다.

References

1. Chao Yuan Fang. Zhu Bing Yuan Hou Lun(in 『Qin Ding Si Ku Quan Shu · Zi Bu · Yi Jia Lei 2』). Seoul. Publisher Dae Seong Mun Hwa Sa. 1995. p.389, 590.
2. Chen Wu Ze. Chen Wu Ze Yi Xue Qun Shu · San Yin Ji Yi Bing Zheng Fang Lun.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pp.156-157.
3. Cheng Zhong Ling(author), Fei Bo Xiong(critic). (Zeng Pi) Yi Xue Xin Wu. Taipei. Publisher Wen Guang Tushu Limited. 1982. pp.169-170.
4. Dai Yuan Li. Bi Chuan Zheng Zhi Yao Jue Ji Lei Fang. Beijing. Publisher Ren Min Wei Sheng. 1989. pp.88-89.
5. Dong Ui Hag Yeon Gu So Main Editor. Dong Ui Oe Gwa Hak. Seoul. Publisher Yeo Gang. 1994.
6. Hong Won Sik. Jeong Gyo Hwang Je Nae Gyeong So Mun. Seoul. Publisher Dong Yang Ui Hag Yeon Gu Won. 1985. p.57, 89, 116, 153, 185, 265. pp.153-154, 266-267.
7. Hong Won Sik. Jeong Gyo Hwang Je Nae Gyeong Yeong Chu. Seoul. Publisher Dong Yang Ui Hag Yeon Gu Won. 1985. p.68, 286.
8. Li Chan. Yi Xue Ru Men (shang). Seoul. Publisher Nam San Dang. 1991. p.358, 457.

9. Li Chan. Yi Xue Ru Men (xia). Seoul. Publisher Nam San Dang. 1991. p.1414, 1514. pp.1087-1090, 1186-1187.
10. Li Gao. Li Dong Yuan Yi Xue Qun Shu.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11. Li Gao. Li Dong Yuan Yi Xue Qun Shu · Dong Yuan Shi Xiao Fang.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p.258. pp.258-260.
12. Li hong Zi. Li Zhong Zi Yi Xue Qun Shu · Yi Zong Bi Du.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1999. pp.232-233.
13. Lin Pei Qin. Lei Zheng Zhi Cai. Taibei. Publisher Xuan Feng. 1978. pp.429-431.
14. Lin Chuang Zhong Yin Ei Ke Xue Bian Wei Hui. Lin Chuang Zhong Yin Ei Ke Xue(shang). Beijing. Bei Jing Chu Ban She. 1997. p.1131.
15. Lou Ying. Yi Xue Gang Mu(xia). Seoul. Il Jung Sa. 1984. p.1197, 1205.
16. Qin Jing Ming. Zheng Yin Mai Zhi. China. Publisher Xuan Feng. no date. pp.133-145.
17. Shen Jin Ao. Shen Jin Ao Yi Xue Qun Shu · Za Bing Yuan Liu Xi Zhu.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1999. p.537.
18. Sun Si Miao. Bei Ji Qian Jin Yao Fang(in 『Qin Ding Si Ku Quan Shu · Zi Bu · Yi Jia Lei 3』). Seoul. Publisher Dae Seong Mun Hwa Sa. 1995. pp. 605-608.
19. Unknown author. Hua Tuo Zhong Chag Jing. Taiwan. Publisher Zi Ou. 1978. p.17.
20. Wang Shou, Liu Bai Ling(Main Editors). Zhong Yi Gu Shang Ke Lin Chuang handbook. Beijing. Publisher Ren Min Wei Sheng. 1993.
21. Wang Tao. Wang Tao Yi Xue Qun Shu · Wai Tai Mi Yao Fang.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pp.430-434.
22. Yan Yong He. Yan Yong He Yi Xue Qun Shu · Zhong Ji Yan Shi Ji Sheng Fang.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p.73.
23. Yang Shi Ying. Renzhizhi(in 『Qin Ding Si Ku Quan Shu · Zi Bu · Yi Jia Lei 12』). Seoul. Publisher Dae Seong Mun Hwa Sa. 1995. pp.353-356.
24. Yang Si Shu, Zang Shu Sheng, Chuan Jing hua(Main Editors). Ahn Se-yeong(Translator). Dong Ui Im Sang Nae Gwa Hak(II). Seoul. Publisher Beob In Mun Hwa Sa. 1999.
25. Yu Tuan. Yi Xue Zheng Zhuan. Seoul. Publisher Seong Bo Sa. 1986. p.190, 191.
26. Zhang Bo Yu. Zhong Yi Nei Ke Xue. Beijing. Publisher Ren Min Wei Sheng. 1988. p.545.
27. Zhang Jie Bin. (Xuan Tu Zhu Shi) Jing Yue Quan Shu. Publisher Beob In Mun Hwa Sa. 2007. p.464. pp.464-465.
28. Zhang Lu. Zhang Lu Yi Xue Qun Shu · Zhang Shi Yi Tong.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1999. pp.175-176.
29. Zhang Zhong Jing(author). Cheng Wu Ji(annotator). Cheng Wu Ji Yi Xue Quan Shu · Zhu Jie Shang Han Lun.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4. p.71.
30. Zhang Zhong Jing. Jin Kui Yao Lue Fang Lun(in 『Zhong Jing Quan Shu』). Seoul. Publisher Dae Seong Mun Hwa Sa. 1992. p.371, 390, 392.

31. Zhu Di. Pu Ji Fang(in 『Qin Ding Si Ku Quan Shu · Zi Bu · Yi Jia Lei 20』). Seoul. Publisher Dae Seong Mun Hwa Sa. 1995. p.203.
32. Zhu Zhen Heng. Zhu Dan Xi Yi Xue Qun Shu · Dan Xi Xin Fa.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p.182, 183.
33. Zhu Zhen Heng. Zhu Dan Xi Yi Xue Qun Shu · Mai Yin Zheng Zhi. Beijing. Publisher Zhong Guo Zhong Yi Yao. 2006. p.499.
34. Jo Hak-jun. Reference Research on Low Back Pain in 『Uihagimmun(醫學入門)』.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4. 27(2). p.134.
35. Kim In Sang, Choi Hyeon, Moon Seok Jae, Pack Ho Sik. Clinical Study on Lumbago in Oriental Medical Gastroenterology. Journal of Korean Medical Society. 1988. 9(1).
36. Kwak Hyeon-yeong, Nam Dong-woo, Kang Jung-won, Kim Eun-jung, Kim Kap-sung, Choi Do-young, and Lee Jae-dong. A Bibliographic Study on Low BACK Pain and Related General Symptoms in Classical Literatures.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9. 26(6).
37. Min-Woo Kim, Youn-Seok Ko, Jung-Han Lee, Won-Suk Chung, Byung-Cheul Shin, Yun-Yeop Cha, Ho-Yeon Go, Seong-Ho Sun, Chan-Yong Jeon, Bo-Hyoung Jang, Yun-Kyung Song, Seong-Gyu Ko. The Analysis of Pattern Identification of Low Back Pain, Which is Used in Thesis both in Korea and China. J Rehab Med. 2013. 23(2).

